



# 11 . 안전



### 11-1. 야간활동 안전성

## 군민의 2명 중 1명은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생각

- 야간활동 및 보행에 대해 「안전하다(매우 안전+비교적 안전)」(60.3%)라 답한 군민이 「불안하다(매우+비교적)」라고 생각하는 군민보다 많음
  -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활동 및 보행에 대해 “안전하다”의 응답률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하다”의 응답률이 낮음
  - “중부권”과 “광주인근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라고 많이 응답함
- 「불안하다(매우 안전+비교적 불안)」(16.1%)고 답한 응답자의 주된 불안한 원인으로서는 「가로등이 없어서」(48.4%), 「인적이 드물어서」(46.4%)가 있음
  - “중부권”은 “인적이 드물어서”가 “서부권”은 “가로등이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대한 주된 대처방법으로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41.4%)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34.7%)를 높게 응답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에 대한 응답이 높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에 응답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야간활동에 대한 안전성과 불안한 원인 >>

(단위 : %)

매우 안전하다	16.2
비교적 안전하다	44.1
보통이다	23.6
비교적 불안하다	12.8
매우 불안하다	3.3

#### << 대처방법 >>

(단위 : %)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41.4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10.3
집앞까지 택시를 탄다	3.5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6.5
낮에 가거나 다음으로 미룬다	34.7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1.4

#### << 성별 대처방법 >>

	남자	여자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33.1	49.4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10.0	10.6
집앞까지 택시를 탄다	4.3	2.8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6.0	7.0
낮에 가거나 다음으로 미룬다	25.9	43.9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2.2	0.5

[표 11-1] 야간활동 안정성 (1)

(단위 : %)

구 분		안전성					
		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17		100.0	16.2	44.1	23.6	12.8	3.3
지역별	중부권	100.0	19.5	40.0	26.2	11.9	2.4
	북부권	100.0	9.0	56.9	24.9	7.4	1.9
	서부권	100.0	10.0	41.9	21.5	20.4	6.2
	광주인근권	100.0	24.7	45.7	18.8	8.6	2.1
연령별	15 - 29세	100.0	17.3	31.3	26.6	20.1	4.7
	30 - 39세	100.0	5.3	35.6	31.6	22.2	5.4
	40 - 49세	100.0	13.1	34.9	24.9	22.9	4.3
	50 - 59세	100.0	12.6	47.1	27.1	9.6	3.6
	60세 이상	100.0	21.8	53.7	18.0	4.9	1.6
	65세 이상	100.0	22.1	54.1	17.7	4.5	1.5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11-1] 야간활동 안정성 (2)

(단위 : %)

구 분		불안한 원인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2017		100.0	48.4	4.4	46.4	0.8
지역별	중부권	100.0	34.0	6.2	59.8	0.0
	북부권	100.0	46.5	9.4	44.1	0.0
	서부권	100.0	63.6	2.9	32.7	0.8
	광주인근권	100.0	41.1	0.0	54.9	4.0
연령별	15 - 29세	100.0	47.0	3.2	49.8	0.0
	30 - 39세	100.0	51.2	2.8	46.0	0.0
	40 - 49세	100.0	45.8	3.4	49.4	1.4
	50 - 59세	100.0	60.1	2.9	37.0	0.0
	60세 이상	100.0	40.3	11.4	45.6	2.7
	65세 이상	100.0	38.3	8.5	49.6	3.6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11-1] 야간활동 안정성 (3)

(단위 : %)

구 분		대처방법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17		100.0	41.4	10.3	3.5	6.5	34.7	1.4	2.1
성별	남 자	100.0	49.4	10.0	4.3	6.0	25.9	2.2	2.1
	여 자	100.0	33.1	10.6	2.8	7.0	43.9	0.5	2.2
연령별	15 - 29세	100.0	61.1	12.8	0.0	4.5	16.9	4.7	0.0
	30 - 39세	100.0	38.1	6.7	1.9	17.9	29.9	0.0	5.5
	40 - 49세	100.0	38.6	11.4	8.4	1.4	37.7	0.0	2.5
	50 - 59세	100.0	34.0	17.5	4.2	0.0	41.5	0.0	2.9
	60세 이상	100.0	27.1	2.1	2.6	10.4	56.3	1.6	0.0
	65세 이상	100.0	23.7	2.8	3.5	9.9	57.9	2.2	0.0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 11-2. 기초질서 준수 및 미준수 이유

군민의 5명 중 4명은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  
 기초질서 미준수의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

- 군민의 기초질서 준수 정도는 「잘 지키는 편이다(매우+비교적)」 (85.6%)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잘 지키지 않는다(매우+비교적)」 (0.8%)는 매우 낮음
  - “서부권”의 “잘 지키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91.0%로 타지역에 비해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질서 준수 정도가 높음
- 기초질서 미준수의 이유는 「법을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 (51.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22.7%),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19.6%) 순임
  - “중부권”의 “법을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률은 100.0%로 타지역에 비해 높음
  -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법을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임

### << 기초질서 준수 정도와 미준수 이유 >>

(단위 : %)

매우 잘 지키는 편이다	37.4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48.2	6.7	22.7
보통이다	13.7		
비교적 지키지 않는 편이다	0.7		
전혀 지키지 않는 편이다	0.1		

[표 11-2] 기초질서 준수 정도

(단위 : %)

구 분		계	매우 잘 지키는 편이다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보통이다	비교적 지키지 않는 편이다	전혀 지키지 않는 편이다
2017		100.0	37.4	48.2	13.7	0.7	0.1
지역별	중부권	100.0	36.6	49.2	13.7	0.5	0.0
	북부권	100.0	28.0	50.9	19.7	1.4	0.0
	서부권	100.0	40.6	50.4	8.5	0.2	0.2
	광주안근권	100.0	43.5	39.5	15.8	1.2	0.0
성별	남 자	100.0	39.3	47.0	12.7	0.9	0.0
	여 자	100.0	35.4	49.4	14.6	0.4	0.1
연령별	15 - 29세	100.0	32.2	53.3	14.6	0.0	0.0
	30 - 39세	100.0	27.9	50.7	19.3	1.5	0.5
	40 - 49세	100.0	36.4	47.0	13.8	2.8	0.0
	50 - 59세	100.0	36.4	48.0	15.3	0.4	0.0
	60세 이상	100.0	43.0	46.0	10.9	0.1	0.0
	65세 이상	100.0	43.6	45.7	10.7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100.0	37.7	47.7	14.6	0.0	0.0
	고 졸	100.0	40.2	47.2	11.6	1.0	0.0
	대졸이상	100.0	32.1	51.1	14.7	1.8	0.3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표 11-2] 기초질서 미준수 이유

(단위 : %)

구 분		계	법은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귀찮아서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2017		100.0	51.1	19.6	0.0	0.0	6.7	22.7	0.0
지역별	중부권	100.0	100.0	0.0	0.0	0.0	0.0	0.0	0.0
	북부권	100.0	0.0	39.0	0.0	0.0	22.0	39.0	0.0
	서부권	100.0	50.0	50.0	0.0	0.0	0.0	0.0	0.0
	광주안근권	100.0	57.7	0.0	0.0	0.0	0.0	42.3	0.0
성별	남 자	100.0	45.3	18.7	0.0	0.0	0.0	36.0	0.0
	여 자	100.0	60.9	21.0	0.0	0.0	18.1	0.0	0.0
연령별	15 - 29세	0.0	0.0	0.0	0.0	0.0	0.0	0.0	0.0
	30 - 39세	100.0	74.3	25.7	0.0	0.0	0.0	0.0	0.0
	40 - 49세	100.0	25.0	21.5	0.0	0.0	12.1	41.4	0.0
	50 - 59세	100.0	100.0	0.0	0.0	0.0	0.0	0.0	0.0
	60세 이상	100.0	100.0	0.0	0.0	0.0	0.0	0.0	0.0
	65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고 졸	100.0	31.8	0.0	0.0	0.0	15.5	52.7	0.0
	대졸이상	100.0	65.6	34.4	0.0	0.0	0.0	0.0	0.0

※ 자료 :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